

문화시론

통일논의의 확대와 남북문화교류

“이제 서로를 느껴야 할 때”

분단된 국가의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통일일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국민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진 이 겨레의 아픔을 노래한 가사와 곡조가 요즘처럼 가슴 벅찬일이 분단이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다.

실례는 통일조국의 미래가 많이 가까워진 듯한 느낌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과 북의 사람들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 어우러지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하게 매달려있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각종 문화계의 모임들을 살펴보고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발요한, 그리고 반역사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격조스런 논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매일처럼 들리는 언론들의 과장된 목소리와 남과 북, 양쪽 실무자들의 행위들은 아직도 무엇의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지도.

지난 10월31일 전국 15개 대학에서 일제히 상영된 북한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학생측의 대립은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고 있었다. 상영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와 ‘소금’, ‘탈출기’, ‘사랑 내사랑’ 등이다.

북한영화 ‘소금’은 일제시대 여류작가 강경애가 쓴 작품이며 한국판 ‘어머니’-(고리키자)로 불리는 작품으로 북한에 피압되었다던 신상옥감독과 최은화씨가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이다. ‘탈출기’는 최서해의 소설로 역시 신상옥 감독의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일제시대 항일투쟁을 그렸던 영화로 알려져 있다.

경쟁은 ‘이 영화들이 일제시대 항일투쟁을 그렸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는것에서 학생들의 영화상영을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학생들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통일원에서 일반인에게 북한 영화가 공개되고 있고 북한의 대표적 영화들을 통해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북한바로알기운

동의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예술표현의 자유 문제도 떠들석했던 일제시대 연극·영화계의 모습들과 사뭇 비슷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이 단순한 유희적 작품에 작가의 사상과 이념 생각이 배제될 수 없음을 불을 모듯 한 것이다. 이념영화나 극영화

국가단체고무·찬양등이다. 이 죄명은 영화상영과 관련된 구속자들의 죄명과 일치한다.

서울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강영훈 총리는 “서로의 실상을 잘 알수 있도록 출판물을 공개·교류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결국 앞·뒤가 전도된 자기당파적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북한의 순수한 학술서적, 국내외

원형무도회서 막을 올린 남북영화제에 참가한 북한 여배우 홍영희씨는 “남쪽영화를 본 일이 있나?”라는 남쪽기자의 질문에 “상륙수”와 황정순씨가 주연한 ‘어머니의 슬픈마음’ 배우 문화씨가 나온 영화들을 본 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한국배우중 북한영화를 본일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싶다.



학계·매주 주 행진들을 벌이는 남북영화제

예술창작품을 정치적 담보로 이용할 수 없어

민간차원의 직접교류 활성화 “바람직”

나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북한이나 남한, 아니 세계의 모든 나라의 예술작품속에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저 예술이라 하겠는가. 결국 정치성의 유무로 예술작품을 금한다던 작가에 대한 모독이요 또한 표현예술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현예술과 관련하여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작품의 출판·발행·유통이 자유로워진 것이라 하겠다. 표현예술과 관련하여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작품의 출판·발행·유통이 자유로워진 것이라 하겠다. 표현예술과 관련하여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작품의 출판·발행·유통이 자유로워진 것이라 하겠다.

사회체제 분석서, 또는 노동운동론들은 ‘이적표현물’로 의심의 발기에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은 북한을 더이상 ‘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민족의 일원으로 동등자임을 천명한 바 있으나 이미 국가보안법상의 7조는 효력을 잃었다 할 수 있겠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 7조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라는 이른바 ‘한정해설’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문제에는 논의로 하더라도 우선 형평의 원칙에도 남과 북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10월 10일 밤 8시 뉴욕 컨스의

이 홍영희씨가 주연한 대표적 영화가 ‘꽃파는 처녀’이다. ‘꽃파는 처녀’는 남과 북의 적십자회담의 결렬을 야기한 작품이다. 지난 8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1개월만에 재개된 제 8차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2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꽃파는 처녀’의 공연내용이 적십자의 중립성원칙과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쌍방합의에 어긋나고 남쪽 수석대표 송영대씨가 공연불가의 뜻을 나타냈고, 북한의 박영수 대표단장은 “꽃파는 처녀”는 국내외에서 1천회이상 공연된 예술작품으로 민족성이나 건전성,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쌍방합의에 부합한다”고 주장 결국 회의를 결렬했다. 이와 더불어 남한에서는 8월 열사관 출판사의 편집장 박강호씨가 역시 ‘꽃파는 처녀’ 원전 출간과 관련 구속되었다.

결국 올해안에 이산가족 및 예술공연단의 왕래는 불가하게 되고 말았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 이해와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북의 소식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온갖 추측과 오해가 난무하던 시절, 그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분단조국의 광명어리에서 요즘은 이국 하늘아래서의 통일일의 열기와 화해가 더욱 감격스럽다.

미주민족문화예술인연합회’의 ‘통일예술’의 창간이 그렇고 미동부에예술연합회의 ‘남북영화제’가 그렇다. 물론 양쪽의 간섭이 배제된 곳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다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남·북의 정책담당자와 정부의 입김이 없이 분단된 ‘허리’를 이어야만 하는 민간차원의 직접적교류가 이해와 사랑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열린 북한의 통일열기와 개척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남북송년음악제’ 등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때의 남한의 기대와 희망이 아울러 민족의 화음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대학인들의 학술교류와 종교인들의 방문교류, 출판과 언론의 상호 완전한 자유로 창작의 슬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미 북한서 착수했다는 ‘광주여영원’이라는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가 평양거리의 모조제트가 아니라 광주 금남로 도청에서 촬영되고 드라마 ‘여명의 그날’이 이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평양과 신의주에서 찍혀지는 일이 어찌 불가하다 할 수 있겠는가. 북한서적들을 몰래 읽어서 구속되고 북한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학문의 전당에 전경이 들어와 깨고 부수고하는 현실 속에서는 때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공허한 말장난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치적인 입장으로 예술을 담보로 해서서 안되며 게다가 인간의 기본권마저 억압한다면 5천년 문화민족의 자긍심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문화부〉

연재소설 <3>

항사에 스미는 항사

글: 오완진 <영문> 그림: 김중범

집안 안개가 낀 연병장을 싸고 있었다. 동주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낮익은 캐비닛, 서류들, 그리고 말끔히 정돈된 김일병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동주는 전화기만 달랑 누워있는 그의 책상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 불을 붙이고 잠시 후,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동주는 첫 줄을 쓰고 시작했다. 김일병에게, 그동안 잘... 이라고 쓰다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이 아님을 동주는 명백히 알고 있었다. 구겨버렸다. 담배 광초가 쌓여갔다. 또 여러장의 편지지가 구겨졌다. 하얀 백지위에 그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동주는 떨리는 심장의 절편처럼 찢리는 고통속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격정의 마음으로 써갈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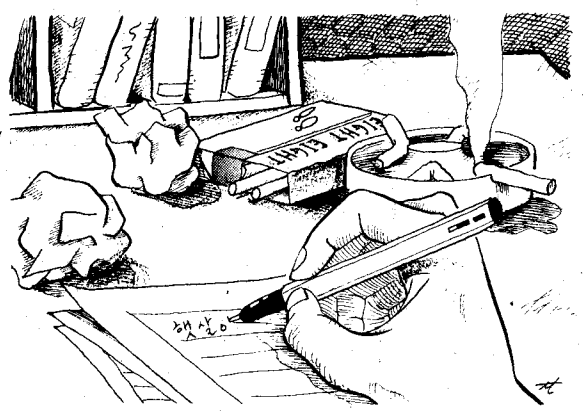
“항사에 차단된 평민에게 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봐라. 그것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속박이며, 타인에 대한 해방감으로 타인을 몰아내는 자위심의 구속이다... 우리는 왜, 부조리한 세상의 불구자로서 다시 태어나려야 했으며, 선그라스를 쓴 채 어둠속으로 달려가야만 하는가. 속박에 눈 멀고 억압에 아픈 손뼉을 당해내야 하는가... 김일병! 가라, 달려 나가라, 굴종의 사슬을 뚫고 헤쳐나가라. 한 점 별이 되어라.”

기상 나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날아 들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집합’이란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동주는 쓰러 편지를 구겨 휴지통에 넣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여명이 개암기 끝에 매달려 있었다. 사열대

집안 이야기 - 그의 아버지가 말한 공무원이란 말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 주변 인물들의 상황, 그리고 갖가지 말들을 이어갔다. 동주는 그의 말이 김일병을 매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일병은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그 꿈은 커가고 있었다. 그러나 입시를 앞두고 난색에 부딪쳐야 했다. 문학학을 하나의 집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과의 맞부딪쳐야 했다. 아버지는 법대를 원했고, 6급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낸 그로서는 당연한 이유처럼 보였다. 결국, 타협은 영문과로 정해졌고, 그 이유는 영어 하나만 잘하면 밥 벌어먹는데 지장없다는 아버지의 주장에서였다. 아버지의 생각은 이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압박을 주었으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를 몰고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와 그의 꿈은 식을줄 몰랐다. 그는 맨 우선적으로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연히 ‘금서’로 지정된 책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육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가 쓴 ‘문학을 옮겨보는 시간’이 주보에 실렸고 그것이 발각되어 뜻하지 않는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의 하숙방이 수색을 당했고 한 달이 넘도록 감방 신세를 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가 감방에서 나온 후 부모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강제 휴학을 당하는 고통으로 이어졌다. 아버지의 강요나 그 사건은 그에게 커다란 억압으로 다가왔고, 전자기 어려운



전진적 고뇌를 겪게했다.

임대 후에도 김일병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책속에서 찾고 있었다.

“그런 책들을 왜 읽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삶을 보는 관점의 정의가 이곳에 담겨있죠.”

편협된 사고가 우리의 폐쇄된 생활에 이식되어지고 있다고 그는 누차에 걸쳐 말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텔레비전과 일지인 신문 한 장이 전부였다. 그 흔한 일간지 한 권도 허락되지 않는 군대에서 우리는 눈동 분사였고 귀머거리 불구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획일화된 사고로 돌아가는 제도적 방편이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세뻘건 빨갱이 씨가. 난 빨갱이 씨까만 보면 피가 끼꾸로 돈다. 재군들은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알겠나?”

“맞!” 그는 결론을 내려 버렸다.

각 수색조가 편성되었다. 이름 없이 한 조를 이루었고 동주는 고일병과 함께 3조에 편성되었다. 정열을 마치고 중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대대장의 말을 삼키지키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빨갱이는 사할해도 좋다.”

중대장은 분을 삭이지 못한 얼굴로 입가에 거품을 뉘어내고 있었다. 그는 각 분대장에게 실탄을 나눠주도록 명령했다.

“그의 분노는 김일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혁명가들에 대한 분노, 그것이였다.”

〈계속〉

문화단선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작품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문학장르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장르론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장르구분의 기준문제, 장르의 연속성과 변화성, 장르류와 장르종의 구분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르론에 대한 저자의 오랜 지식축적이 낳은 깊이와 함께 문학 전반에 걸친 해박한 안목, 분석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김진오 지음·문학과 지성사刊〉

◇지구촌 韓民族◇

한국의 뿌리와 얼을 찾아 미국, 중국, 일본등 5대양 6대주를 두루 돌며 재외한국인의 삶의 명암을 비춰보았으며 독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신문

연재물 ‘지구촌의 한민족’을 엮은 책.

이 책은 망명·정음·강제노역·금주령으로부터의 탈출이 그 본류를 이루고 있는 이민 1세대의 한과 설움의 이민에서부터 60년대 이후 대나를 삶을 위해 떠났던 중산층이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민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일보 엮음·한국일보사刊〉

◇두사람◇

그동안 소개되었던 마르크스 전기가 대부분 이론적·사상적 맥

락에서 기술된 것임에 반해 일상적 개인사에 비중을 두면서 인간적 면모를 흥미있게 다룬 이색적인 전기물이 출간됐다.

‘혁명’이라는 긴박한 상황속에 서도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마르크스와 함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엥겔스의 업적을 마르크스와의 상호관계속에서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는 이 책은 특히 귀중한 사적과 화보자료 1백20매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재인식◇

한미관계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제기한 논문모음집이다.

제1부에서는 미군정기와 광주항쟁전투를 점검, 역대 독재정권과 미국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제2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행정협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실체를 규명했다.

자원이 선사한 최고의 섬유-메리노 울

처음일수록 웃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매받지 않은 여유가 옷에서부터 배어나는 곳 대학과 현실의 표상인 사회가 얼마나 다른 세계인가를... 지금껏 자유라는 이름의 옷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 당신은 넥타이와 양복의 격식이 요구되는 사회인으로서는 책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적응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

메리노 울로 여유롭게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의 부드러운, 자연의 편안함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는 메리노 울— “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코코샤넬의 말처럼 메리노 울은 처음 결정될 당신의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만약 출근 첫 날 메리노 울 양복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사회인으로의 현명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옷, 편한 느낌—메리노 울

가늘고 고운 양털로 만든 메리노 울은 손으로 기어지고 쾌적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며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김이 기도 쉽게 원상태로 회복되어 항상 상쾌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마르가 드리는 약속
올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올마르를 확인하십시오.
세계 130여개국에서 사용되는
올마르는 100% 순모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품질증명 마크입니다.